

어느 작별이 이보다 완벽할까...아이유, '천변만화 보컬'

정규 5집 '라일락' 발매... '화사한 작별 인사' 담아내

"1~10번 트랙, 최대한 다른 목소리 사용하려고 노력"

"질리지 않고 '정주행해서 들을 수 있게' 신경 써"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부탁해 / 어느 작별이 이보다 완벽할까 / 러브 미 온리 틸 디스 스프링(Love me only till this spring)"(아이유 '라일락')

"마지막 인사를 얘기하는 음악에 마음을 내어 주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만물이 약동하는 봄에 말이다. 뭔가 사력을 다해 감정을 떼어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황기와 함께 지난 25일 발매된 아이유의 정규 5집 '라일락'은 '화사한 작별 인사'가 무엇인지를 증명한다. 정규 앨범 발매는 4년 만이다.

우선 아이유가 창작자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보컬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음악 구성이 자유분방하다. 2008년 데뷔한 아이유는 지난 2015년 미니 앨범 '챗서'를 통해 프로듀서로 나섰다. 이후 정규 4집 '팔레트', 미니 5집 '러브 포 엠'까지 프로듀서로서뿐만 아니라 수록곡을 다수 만든 작곡가이기도 했다.

이번 정규 5집 '라일락' 역시 프로듀서, 수록곡 10곡 모두의 작사가로 나섰다. 물론 작곡한 곡은 단 한곡도 실지 않았다. 공동 작곡에 참여한 것도 3번 트랙 '코인'뿐이다.

아이유는 앨범 발매 당일 밤 네이버 NOW, '스

물아홉 살의 봄'을 통해 '제가 프로듀싱을 맡은 후부터 창작자로서의 생각이 들어가다보니 보컬리스트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로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컬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최대한 다른 목소리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청자가 앨범을 질리지 않고 '정주행해서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아이유의 설명처럼, 실로 '라일락'은 다양한 보컬의 성찬이다. 타이틀곡 '라일락'은 아이유가 기존에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쫄독함'이 돋보인다. '좋은 날' '너랑 나' '분홍신' '하루 끝'에서 사용한 발성과 리듬미컬함이 되살아났다. 70~80년대 디스코 사운드가 가미된 화사한 음향에 안성맞춤이다. 2번 트랙 '플루(Flu)'의 목소리 역시 생동감이 있지만, 조금은 아슬아슬하다.

3번 트랙 '코인'은 명쾌하게 아이유의 다른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 아이유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래핑을 8미디가량 선보인다. 그녀의 목소리엔 핑키함도 배어 있다.

나열이 작곡한 4번 트랙 '봄 안녕 봄'에선 감성

적이면서도 절제된 보컬을, 선공개됐던 '셀러브리티(Celebrity)'에서는 반대로 푹푹 터지는 아이유의 보컬을 만끽할 수 있었다.

싱어송라이터 딘이 피쳐링한 '돌림노래'는 레게와 보사노바에 기반한 곡인데, 봄소리를 물고 온다.

'빈 컵'은 아이유의 쓸쓸한 보컬을, '아이와 나의 바다'는 아이유의 폭발적인 고음이 클라이맥스다.

'어푸(Ah puh)'는 약무 이찬혁이 만든 곡. 그는 '아이유의 상큼한 초기 노래들의 현대 해석 버전'이라 하면 어울리겠다라는 코멘트를 아이유에게 전하기도 했다.

"어어어 푸푸푸 푸 / 허허허 우우우적거거거 리더던 시저저절 나라면"이라는 노랫말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오가는 듯하고, 버퍼링 걸린 듯한 가사와 아이유의 발성은 귀여우면서도 애니메이션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드디어 마지막 '에필로그'. 아이유의 이십 대 첫 앨범 '스무 살의 봄' 마지막 트랙을 맡았던 작곡가 심은지를 중심으로 뮤지션들이 문체 만든 발라드다. 아이유의 보컬은 아련하고 애뜻하고 몽환적이다.

이렇게 10개 트랙의 10개 스타일의 다른 아이유의 보컬은 천변만화의 정경이다. 20대의 여러 목소리를 꼭꼭 담아낸 앨범처럼도 들린다.

아이유는 "스물세 살의 아이유도, 스물다섯의 아이유도, 작년의 아이유도 아닌 지금의 저는 이제 아무 의문 없이 이 다음으로 갑니다"라고 인사했다.

뮤지션과 음악은 제 길을 단호하게 갈 때, 궁극을 향한다. 보컬 아이유도, 프로듀서 또는 싱어



싱어라이터 아이유만큼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이유는 아이유만의 진화로 기꺼이 30대를 맞이할 것이다. 만약 20대의 아이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녀를 창작해야 했을 것이다. '라일락'의 꽃말은 '첫사랑', '좋은 날의 추억'이다.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20대의 아이유에게 화사한 작별 인사. 어느 작별이 이보다 완벽할까.



남윤수·최병찬·배운경, KBS 새 드라마 '연모' 합류

궁중 로맨스 드라마... 이소영 작가의 동명의 만화가 원작

KBS 2TV는 새 드라마 '연모'에 남윤수, 최병찬, 배운경이 합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모'는 쌍둥이로 태어나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을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궁중 로맨스 드라마로, 이소영 작가의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다.

박은빈과 로윤이 주연을 맡았으며 남장 여자인 소재를 궁으로 가져오고, 남장한 여자가

왕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눈길을 끈다.

남윤수는 왕실의 종진 '이현', 박은빈의 최병찬은 카리스마 넘치는 호위부사 '김가운', 배운경은 이조판서의 외동딸 '신소연'을 연기한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또 오해영' 등의 송현욱 감독이 연출을,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의 한희정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곧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JTBC 설강화 촬영 중단하라" 국민청원 9만명 돌파

민주화 운동과 간첩 소재로 한 로맨스 드라마 한국의 민주주의 폄하·독재 정권 정당화 비판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조선구마사'에 이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설강화'의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등록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촬영을 중지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기준 참여인원이 9만 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원은 '설강화'의 미리 공개된 줄거리에 따르면 역사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이 드라마의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과 간첩을 소재로 한 로맨스 드라마다. 누리꾼들은 외부에 공개된 드라마 개요(시놉시스)를 공유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독재 정권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청원인은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개입이 없다는 걸 몇 번씩이나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작품은 간첩을 주인공으로 했다"며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은 정부의 이름 아래 인간을 고문하고 죽이는 걸 서슴치 않은 안기부의 미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작품의 설정이라 무시하는데 설정 자체가 현재의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보면 노골적으로 정치의 압력이 들어간 걸로만 보인다"며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을 제기

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설강화 개요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는 반독재 투쟁이 있던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호수여대의 학생 영초가 피투성이가 된 남성 수호를 운동권 학생으로 생각해 보호하고 치료해 주다 사랑에 빠진다.

다만 수호 캐릭터가 실제로는 남과 무장간첩이라는 게 드라마의 반전 설정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영초의 조력자로 대쪽같은 성격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에 JTBC 측은 26일 입장을 밝혔다.

JTBC는 "미완성 시놉시스의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앞뒤 맥락 없는 특정 문장을 토대로 각종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특히 '남과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다' '학생운동을 선도했던 특정 인물을 캐릭터에 반영했다' '안기부를 미화한다' 등은 설강화가 담고 있는 내용과 다름뿐더러 제작 의도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설강화의 내용 및 제작의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며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에



JTBC 새 드라마 '설강화' 출연 배우.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해인, 지수, 윤세아, 정유진, 김혜윤, 장승조 모습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쇼미9' 미란이, 그루비룸 레이블 에어리어 합류

"프로듀서로서 가장 큰 만족감과 재미 준 아티스트"



신에 래퍼 미란이가 그루비룸(GroovyRoom)의 레이블 에어리어(AREA)에 합류했다.

하이어뮤직 소속 프로듀싱팀 그루비룸의 신설 레이블 에어리어는 25일 공식 SNS에 새롭게 영입된 미란이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미란이는 지난해 4월 싱글 앨범 '명탐정'으로 데뷔했다. 같은해 앨범 '쇼미더머니9'에 출연해 우수한 성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쇼미더머니9'에서 미란이와 호흡을 맞춘 그루비룸은 "미란이는 프로듀서로서 가장 큰 만족감과 재미를 준 아티스트다. 함께 음악 작업을 하는 동안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느꼈고, 무엇보다 미란이의 음악을 들으면 기본이 좋아진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미란이는 그루비룸과 함께 한 경연곡 'VVS(Feat. JUSTHIS)(Prod. GroovyRoom)'를 통해 연일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 힙합 어워즈 2021 올해의 힙합트랙에도 선정됐다. 한편 그루비룸은 최근 자체 레이블 에어리어를 설립하고, 신인 아티스트 지원 등 프로듀싱 및 제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구마사' 이유비·박성훈도 사과... "역사 왜곡, 무지"

배우 장동윤이 SBS TV '조선구마사' 논란과 관련 사과한 가운데,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유비·박성훈 역시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유비는 27일 오후 소셜 미디어에 "이번 작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반성의 말씀 올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고 밝혔다.

"드라마 쪽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글을 올리려다보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면서 "이번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에 만났던 작품이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하나씩 이루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에 하지 않았던 캐릭터를 표현하는 저 자신만을 욕심냈던 것 같다.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 무지했고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폭넓은 시야로 작품에 임하는 연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양명대군 역을 맡은 박성훈 역시 이날 소셜 미디어에 "작품으로 실존 인물을 다룬다"고 부담감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작과 왜곡의 경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배우로서의 소임은 연기에 진심으로 다가서 주어진 캐릭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어리석고 모자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

다. 사ian의 심각성과 배우에게도 역사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속상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번 기회로 신중한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하는 배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도 같은 날 소셜 미디어에 "배우의 작품 결정에 앞서 출연 제안을 선 검토하는 매니저먼트로서 사려 깊지 못한 역사 의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작품 선택 하나하나에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사과했다. "향후 소속 배우들의 작품 선택에 있어 깊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